

완주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 준비생 '큰 호응'

입교생 10세대 최종 합격... 3월~12월 체류·체계적 지원 예정

완주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지난 1월에 완공한 가운데, 귀농·귀촌 준비생들에게 큰 호응 얻어 운영에 들어간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완주군으로 이주해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영농교육 및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7억 4,000(지특 6억 3,000, 군비 11억 1,000)만원을 들여 주택 10세대, 영농실습장을 조성한 사업이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까지 모집한 결과, 15세대가 접수해 서면 평가를 거쳐, 심층면접을 통해, 10세대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입교생은 3월까지 입교해 오는 12월까지 가족단위로 체류할 수 있는 주택과 텃밭, 영농교육 등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선발된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세대) 9명, 40대(3세대) 8명, 50대(3세대) 5명, 60대는(1세대) 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1세대, 대전 2세대, 경기 4세대, 충남 1세대, 전주 2세대로 지역별 고루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 체류형농촌센터 조감도

경기도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부인과 함께 입교한 김진원(59세)씨는 "귀농을 위해 지역을 알아보면서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받아야 실재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됐다"면서 "함께 입교한 10세대와 서로 의지하면서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입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완주군 귀농·귀촌 안소연 팀장은 "귀농·귀촌을 하러 해도 지역을 잘

몰라서 꺼려하는 도시민들이 많았다"면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로 인해 이 지역에서 1년 동안 보고 배우다 보면 완주군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완공에 이어 오는 12월까지 5억 5,000(지특 2억 5,300, 2억 9,400)만원을 들여 센터 옆 부지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4개실)를 증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발대식 개최

무주군이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노인돌봄(105명)으로, 일주일에 2~3회(1일 3시간/월 30시간) 연중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경제, 건강이 취약한)를 찾아가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지원과 생활상태(복직, 의료정보제공, 위생상태 확인 등)점검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 돌봄을 통해 또래 어울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어르신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일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대강

당에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이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일자리 참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안전 및 활동교육에 함께 했다.

황 군수는 "어르신들이 바로 정이 넘치는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 군을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의 주역"이라며 "이 일이 도움을 주시는 어르신이나 도움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큰 만족을 안겨 드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527명(전체 인구의 30%)으로 올해 노인돌봄 사업을 비롯해 1,261명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공동생활지원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치매예방과 관리 등의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진안군은 3월말까지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과 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한다.

점검반은 총 5개반(23명)으로 구성해 배수지 시설물 주변 절개지, 옹벽 및 석축 등의 구조물과 성토부부의 지반 상태, 상수도 맨홀, 밸브, 송·배수관 등의 누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과 병행해 지속적인 야간 누수탐사에 나선다. 누수 의심 지역의 배수관로에 대해 평일 22:00~02:00까지 누수탐사를 실시하며 탐사시간에는 수도물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학교 급식소 위생지도

무주군은 새 학기를 맞아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14개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 식품위생 담당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이 함께하는 새 학기 위생지도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작업장의 청결관리와 △기계·기구류에 대한 세척 및 소독 관리 여부, △급식시설과 설비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상태, △부패 또는 변질된 식재료·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그리고 △배식·조리기구의 오염도 측정과 △식중독 예방관리에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산림분야 안전진단 실시

진안군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산림재해 취약지역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말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산사태취약지역 160개소, 임도시설 38개소 등 산림재해 취약지에 대해 자체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구조적인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전북도청 환경녹지국과 가마리 일대 산사태취약지역과 사방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병행해 취약지역 위험요소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시선을 끌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장수군 환경위생과는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895개소 중 돼지사육시설과 처리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 방지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1860ha 숲가꾸기 추진

장수군은 아름다운 산림조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27억4000만원을 투입, 총1,860ha를 대상으로 큰나무가꾸기 250ha, 어린나무가꾸기 300ha, 조림지가꾸기 1,310ha,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7명), 숲가꾸기 페트롤(4명 : 생활민원 피해목 제거)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우선 3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수군 일원에 300ha에 대해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숲가꾸기 페트롤은 지난 2일부터 운영, 숲가꾸기 사업장에 산물을 수집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사람의 팔감 나눠주기

는 추진 중에 있어 별채원목은 매각을 통해 장수군 수입 증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큰나무가꾸기 250ha를 3월말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산지자원화를 촉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6~7월 중 조림지가꾸기사업을 추진, 조림목의 건설한 입목 생산을 촉진시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해 아름답고 푸른 숲을 가꿔나갈 계획이다.

특히 설계·감리제도를 도입,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조림지가꾸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등 각 사업의 조기발주로 농한기 잉여인력의 고용을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갈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U-City센터로 재도약

완주군의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 지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그간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부서별로 설치한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4년 1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뒤 분산 운영된 CCTV를 통합·연계해 24시간 관제체제를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반 인프라와 U-City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응모해 도내 최초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관리자의 효율화, 군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달 14일 개통한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그간 관내 CCTV 통합관제업무 수행했던 관제센터가 U-City센터로 재도약한 것이다.

특히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등 분야별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관제센터와 연계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상황판에 표출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시 119 긴급출동 지원을 위해 현장출동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및 교통정보 등을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완주군의 안전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면 고로쇠 수액 선물

진안군, 운장산 고로쇠축제 기간 12일까지... 10명 추첨 수액 3리 증정

진안군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고 이를 인증하면 고로쇠 수액을 주는 이벤트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페이스북 2만4000명, 인스타그램 1000명 등 SNS 친구 2만5000명과 쌍방향 소통에 힘쓰고 있다. 각종 행정정보, 관광지 및 맛집 정보, 재난 관련 정보 등을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공감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진안군 인스타그램과 제13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

면서 동시에 진안의 첫 축제인 고로쇠축제도 전국에 알린다는 전략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축제가 끝나는 12일 이전에 진안군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jinangun)을 팔로우 한 뒤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을 달면 된다.

군은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하고 진안고원 고로쇠 수액 3리를 선물로 줄 계획이다.

제13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는 3월 11일, 12일 진안군 추천면 운일입반일암 삼거리광장에서 열린다.

축제기간 행사장을 찾으면 해발

600m 이상 청정 진안고원에서 채취하고 정제된 고로쇠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또 진안고원길 걷기, 고로쇠 수액 빨리 마시기, 팔딱팔딱 송어잡기 등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고로쇠나무 소망나뭇잎달기, 연날리기, 목공예체험, 맛돌체험, 고로쇠 채취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다.

고로쇠 막걸리, 시골재지 솥불구이, 고로쇠 두부, 고로쇠 전병, 고로쇠 국수, 홍삼전병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